

東アジア国際学術セミナー in TOKYO 2024
동아시아국제학술세미나 in TOKYO 2024

梗概集・요약집

日時 2024 年 12 月 19 日(木) 10:00~12:40
会場 駐日韓国大使館韓国文化院 5 階ハンナレホール

主 催

駐日韓国大使館韓国文化院

(一社)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社) アジア民族造形學會

東アジア国際学術セミナー in TOKYO 2024 次第
 동아시아 국제 학술 세미나 in TOKYO 2024 식순

次 第	時刻	当 該 担 当 等	
事前説明	9:55	東アジア国際学術セミナー実行委員会副委員長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主席研究員	石 川 洋 子
開会の辞	10:00	東アジア国際学術セミナー実行委員会委員長 名古屋女子大学教授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東アジア歴史文化工芸研究所教授	澁 谷 寿
第1部会 技法・実践	10:05	第1部会説明:Chairman 韓国アジア民族造形學會会長	金 炅 烈
	10:07	第1号発表者: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教授 文化学園大学名誉教授	道明三保子
		題名 日本組紐と綾竹台 일본의 구미히모와 아야타케다이	
	10:32	第2号発表者: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研究員	梶 山 和 世
		題名 紙布について 「시후」에 대해서	
	10:57	質疑応答	
	11:02	第1部講評:Chairman 韓国アジア民族造形學會会長	金 炅 烈
入 替	11:07		
第2部会 検証・考察	11:12	第2部会説明:Chairman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	横 田 素 子
	11:14	第3号発表者:アジア民族造形學會副会長 法古創新 代表	金 巨 富
		題名 정조대왕의 현릉원 능행차 의미 고찰 正祖大王の顯隆院陵行幸の意味の考察	
	11:39	第4号発表者:アジア民族造形學會主席副会長 韓服産業センター 所長	李 秉 花
		題名 조선 22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시 왕가복식 착용 제시 朝鮮第22代正祖大王御陵行幸再現時、王家服飾の提示	
	12:04	第5号発表者: アジア民族造形學會理事 未来服飾研究院 院長	金 月 桂
		題名 상복(喪服)과 상여(喪輿)에 나타난 기복(祈福) 표현 喪服と喪輿に現れた祈福表現	
	12:29	質疑応答	
	12:34	第2部講評:Chairman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	横 田 素 子
記念撮影	12:39	実行委員長・実行委員会委員・chairman・発表者全員	

実行委員会委員長 紹介
실행위원회 위원장

澁谷 寿 시부야 히사시
SHIBUYA Hisashi

名古屋女子大学教授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工芸研究所 教授
나고야 여자 대학 교수
동아시아 역사문화연구소 교수
동아시아 역사문화 연구소 공예연구소 교수

【主な受賞】

第14回ハンズ大賞作品展、グランプリ(1997)
CONTENTPORARY TOYS OF THE YEAR 97、準グランプリ(1997)
第3回 CCDO デザインアワード 2005、審査員特別賞(2006)
2011・2014 年度日本学術振興会科学研究費審査員表彰(2011・2014)

【その他の役職】

丹波の森ウッドクラフト公募展、一般の部審査委員長
名古屋女子大学総合科学研究所所長、名古屋女子大学付属幼稚園園長

【最近の論文】

「幼児・小学校児童を対象とした玩具づくりワークショップ実践研究 :
造形・科学・技術の横断的な学び(STEAM 教育)の方法の検討(1)」(共)
『名古屋女子大学紀要 69 号』(2023)
「幼児教育で育みたい資質・能力に関する研究:幼稚園におけるプロジェクト型保育
の可能性に関する実践研究 I」(共)『総合科学研究科第 18 号』(2024)

【主な著作と作品展】

「子どもの遊び状況に適應する玩具作りワークショップおよび玩具デザインの展開:
日本学術振興会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報告書(2005-2007)
「林で遊ぶ」:すべての感覚を駆使してわかる乳幼児の造形表現(共)教育情報出版社(2020)
「機械仕掛けの仮面」:東 ASIA 国際展覧会 in TOKYO(2021)

第Ⅰ部会
제1부회

技法・実践
기술·실천

Chairman

김경열 金炅烈
KIM Kyung-yeol

Interpreter

中村克哉 나카무라 가츠야
NAKAMUARA Katsuya

第I部会 Chairman 紹介
제 1 부회 Chairman 소개

김경열 金炅烈
KIM Kyung-yeol

아시아민족조형협회 회장,
서울시무형문화재 홍염장 보유자
アジア民族造形學會 会長
ソウル市無形文化財「紅染匠」保持者

2008 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0-2011 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의례 실록 표장직물 염색 복원작업 (세계문화유산 국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상찬 교수, 아시아민족조형학회 상임고문 김경열 논문 발표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2013 년, 대한민국 명장 제 561 호 지정됨.

2013 년, 대한민국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과 독일섬유산업 발전현황’ 논문 발표(독일)

2015 년, 제 40 회 전승공예대전 심사위원

2016 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섬유학과 석사, 박사과정 강의

2017 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 49 호 홍염장 지정 (대한민국 서울시)

2019 년, 2021 년, 국립고궁박물관 의례표장직물 염색 복원작업(세계문화유산 국보)

2023 년, 아시아민족조형 학회 추계학술대회 규장각 의례표장직물 복원작업
(세계문화유산 국보) 논문발표

2024 년, 부산시 최고 공예명장 심사위원

2024 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채널 홍염장 기록물 촬영

2022.02 - 2024. 현재까지 (사)아시아민족조형학회 12 대, 13 대 회장 역임중

第 1 号発表者紹介
제 1 호 발표자 소개

道明三保子 도묘 미호코
DOMYO Mihoko

文化学園大学名誉教授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
문화학원대학 명예교수
동아시아 역사문화연구소 교수

【主な著作】

- 共著『アジアの風土と服飾文化』（放送大学教育振興会・2004）
- 共著『三井家のきもの』（文化学園服飾博物館 文化出版局・2006）
- 共著『西アジア・中央アジアの民族服飾—イスラームのヴェールのもとに—』
（文化学園服飾博物館 文化出版局・2006）
- 『龍と鳳凰 中国染織の流れ』（平山郁夫シルクロード美術館・2008）
- 『カシミールショール：変化するペイズリー文様』（山川出版社・2010）
- 『日本の伝統組紐の調査研究と国産繭による組紐素材の開発』（デジタル・2011）
- 「織り上げられた動物たちと花々：横浜ユーラシア文化館蔵二作品の美術史的・文化史的考察」
（2017・世界思想社）
- 著書『アジアの伝統染織と民族服飾：豊穰なる生活造形の世界』
（あっぷる出版社・2021）

日本の組紐と綾竹台

道明三保子

はじめに

日本の組紐は、絹の特性をよく活かし、組み方の種類の豊富さ、幅広い用途、格調高い工芸美など世界に類を見ない輝かしい歴史を築いてきた。歴代の工匠たちは時代に合った新たな用途を開拓し、それに適した技術と装飾を追及し、伝統工芸の美を支えてきたのである。

今日では着物のアクセントである帯締めや羽織紐をはじめ、ネクタイやベルトなどに組紐の美と技が広く活かされている。

1. 組紐とは

織物の“織る”とは、たて糸とよこ糸を直角に交差させながら、互いの上に浮いたり下に沈んだりさせて面状の広がりを作ることである。これに対し、組物の“組む”とは元が一つにまとめられた糸を斜めに交差させながら、互いの上に浮いたり下に沈んだりさせて紐状のものを作ることで、これを“組紐”と呼んでいる。

2. 組 台

手組の組紐は、道具を用いず手だけで作ることも可能であるが、複雑な組み方や均一の組み目、伸縮の調節のために、角台、丸台、高台などの組台を用いる。



丸台



高台

3. 綾竹台

「綾竹台」は、別名を「駿河台」とも言い、糸の付いた玉の全部を箸と羽根を交互に置く手前側にまとめ、その玉を上げ下げして組むため、縦の筋が基本になる組み方である。



箸と羽根の間の上下2本の玉を入れ替えることによって、それを緯糸となる左右2本の糸がしめてゆくため、厳密には、綾竹台で作られる紐は「もじり織物」の部類に入ると言えよう。(文献：山本薫『くみひもの研究』1974年、p74)。

「撚り」、「Z撚り」の配置の違いや各玉のもじる方向によって、組の種類ができてくる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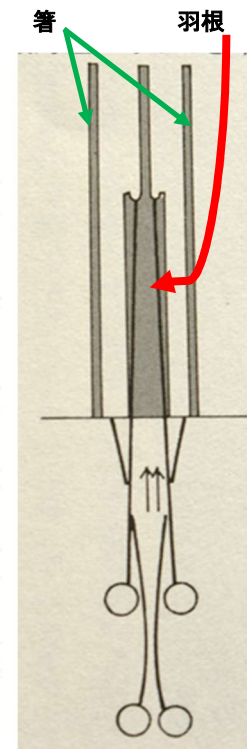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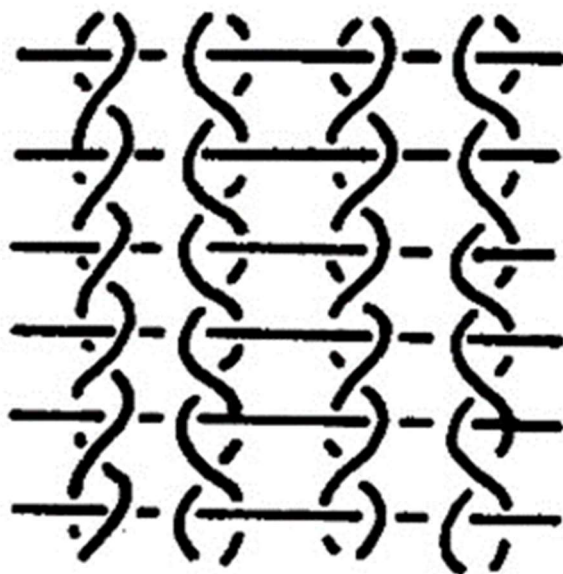
代表的な組み方に「駿河組」、「鎌倉組」などがある。これらは、鎌倉時代すでに組まれていた記録が残されている。

綾竹台

【駿河組】

「駿河組」は、一目ごとに組み目が相対している組み方で、縦筋が引き立ち、縦縞の柄を組むのに適している。江戸時代の木版図録集「集古十種」の刀剣の部に、鎌倉時代の太刀の帯取りを駿河組で組んでいる図解があり、駿河組は鎌倉時代にすでに組まれていたことが判る。

また、駿河組は伸縮性が極端に少ない組み方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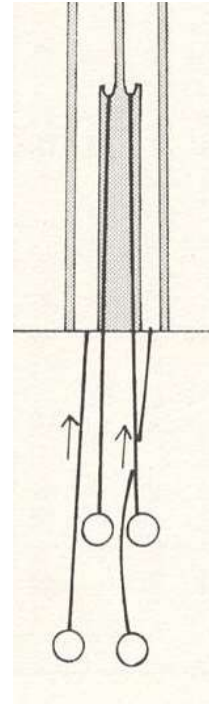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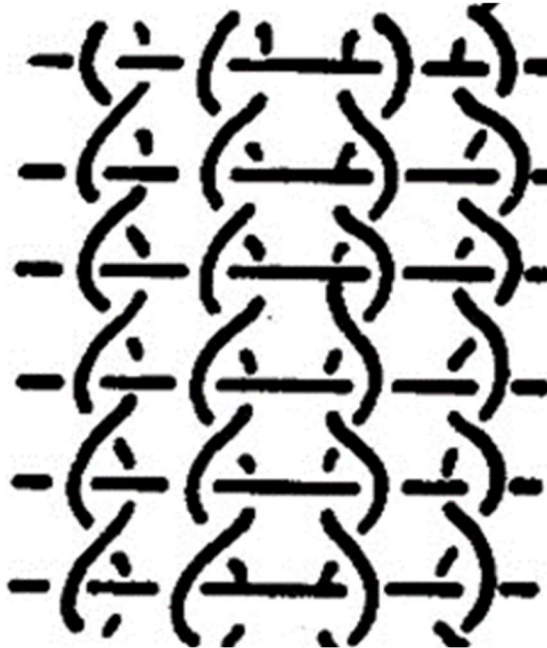


【鎌倉組】

組み目が左側は右、右側は左と、それぞれ傾斜しているので、駿河組のように縦筋ははっきりしない。したがって柄は縦の纏縄柄が適している。

平安時代に唐から渡来した段染めの美しい織紐があるが、その意匠を組紐で表現するときに、鎌倉組がよく使われる。

鎌倉組の名称は、駿河に対して鎌倉であるなどともいわれるが、全く根拠は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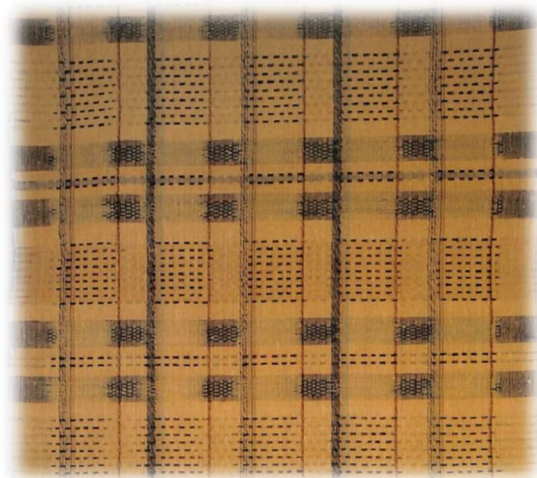
第2号発表者 紹介
제 2 호 발표자 소개

梶山和世 카지야마 카즈요
KAJIYAMA Kazuyo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工芸研究所 研究員
동아시아 역사문화 연구소 공예연구소 연구원

専門分野: 紙布・染織

전문분야: 시후・염직



紙布について

梶 山 和 世

はじめに

日本には手漉き和紙による生活に使われたものとして、「紙布」と「紙子」がある。

和紙を作る素材には、「楮(こうぞ)」「三桮(みつまた)」「雁皮(がんび)」があり、主に紙布、紙子用には楮 100%で漉かれた和紙が使われる。

1. 「紙布」と「紙子」

【紙布】

和紙を細く切り、湿らせて、揉んで撚りをかけて紙の糸を作り、その糸を用いて織った布を指す。

宮城県白石市、静岡県熱海市などが「紙布」の産地である。

とくに、精巧な織物として有名なのが 300 年の歴史を有する「白石紙布(しろいしふ)」である。

【紙子】

和紙にこんにゃく糊等を塗布し、用途によりさらに強度を上げるために柿渋を引いたり揉んだりしたものを指す。

和紙は破れれば糊で貼り合わせたりもでき、多様性を秘めた素材であり、使い古された和紙も捨てることなくこのような作業によって「紙子」に生まれ変わり、日常生活で生かされてきたのである。

紙子は保温性に優れており、奈良県東大寺二月堂で厳寒の中、毎年行われる「御水取り」で知られる「修二会(しゅうにえ)」の行事で修行僧が着用する行衣は「紙衣」とも呼ばれるが、「白石和紙」や「越前和紙」を材とした紙子を用いて僧自らが仕立てたものである。

現代では、風流な素材として、心を癒すものとして熱い支持を集めている。

2. 「紙布」の作り方

「折る」→「切る」→「揉む」→「績む」→「撚る」→「撚り止め」→「総上げ」

- (1) 紙布用紙約9g～約15g横約90cm、縦約60cmの「二・三判」と呼ばれる手漉き和紙(流し漉き)を4枚重ねて、横から見ると「W」字のように折る。
- (2) 天地1.5cmずつを残して用途により幅2mm、3mm、4mm、5mm、6mmにカッターで切る。



(1)



(2)

(3) 裁断した紙を湿らせたタオルに挟んで一晩寝かせる。

翌日、和紙が湿った状態で、石の上で揉む。

(4) 揉んだ紙の天地の一方を広げて、
2本まとめて箸で、親指と人差し指で
績み繋ぎ、もう一方も繋がるようにして
同様に績む。

(5) 績んだ糸を糸車で撚りをかける。

(6) 撚りをかけた糸を熱湯に漬けて撚り止め
をする。

(7) 総に上げて糸を染める(植物染料)。
或いは、染めずに生成りのまま使って織る。



(4)



(5) (6) (7)

(8) 織り上がったものを湯通しして、仕上げる。

2. 「紙布」の種類

【絹紙布(きぬじふ)】

経糸が「絹」、緯糸が「紙糸」：着物、帯、服地、古帛紗など

【綿紙布(めんじふ)】

経糸が「木綿」、緯糸が「紙糸」：着物、帯、作務衣、甚平、シャツ地、暖簾、卓布など

【諸紙布(もろじふ)】

経糸、緯糸ともに「紙糸」：着物、帯、作務衣、暖簾、卓布など

作り手の感覚や使い手の要望により、他の織物と同様、様々な応用によって作られ、使われている。

3. 「紙布」の特長

- 夏は涼しく、冬は暖かいといった遮熱効果と保温性が認められる。
- 押し洗いで形を整えたり、洗濯ネットを利用した洗濯が可能である。
但し、蛍光剤の入った洗剤は使用できない。
- 使いこおほど、或いは水を通すほど、風合いが良くなる。

4. 「紙布」の素材となる用紙

- | | |
|-----------------|----------------------------|
| ○「西ノ内紙(にしのうち)」 | 茨城県常陸大宮市(旧山方町)の特産 |
| ○「門出和紙(かどいでわし)」 | 新潟県柏崎市高柳町門出 |
| ○「紙布用紙(しふようし)」 | * 筆者は山形県の長谷川和紙工場の「紙布用紙」を使用 |

参考文献

- 櫻井喜一著『紙布の本』(未刊)
片倉信光著『白石和紙紙布紙衣』(慶友社・1988)
軽野裕子著『生紙と紙糸』(紫紅社・2017)

第2部会
제 2 부 회

検証・考察
검증・고찰

Chairman

横田素子 요코타 모토코
YOKOTA Motoko

Interpreter

中村克哉 나카무라 가츠야
NAKAMUARA Katsuya

第2部会 Chairman 紹介 제 2 부 회 Chairman 소개

横田素子 요코타 모토코
YOKOTA Motoko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
内蒙古大学・雲南民族大学 客員教授
동아시아 역사문화연구소 교수
내몽고대학 운남민족대학 객원 교수

【韓国に関する主な論文】

- 2013 年 「徳惠翁主の留学と結婚」(国立古宮博物館徳惠翁主生誕百周年記念特別展)
- 2015 年 「日本資料に見る李鍋公殿下の生涯」
『アジア民族造形學報第15輯』(アジア民族造形學會)pp.65-110
- 2018 年 「朴泳孝関係資料における大朝鮮国留学生に関する一考察」
『現代中國と東アジアの新形勢』(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學研究院) pp.223-232
- 2018 年 「1882年朝鮮国修信使朴泳孝に関する一考察」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論文集創刊号』(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pp.16-28
- 2019 年 「甲申政変後の日本における朝鮮国人の動向に関する一考察」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論文集第2号』(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pp.73-92
- 2022 年 「明治期における日本海軍初の朝鮮国人留学生金亮漢について」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論文集第5号』(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pp.31-47
- 2023年 「1881年における朝鮮国人孫鵬九の東京大学医学部留学案件について」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論文集第6号』(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pp.113-132

第3号発表者 紹介
제 3 호 발표자 소개

김거부 金巨富
KIM Geo-Boo

법고창신 대표
조선전통의례 전문 감독
아시아민족조형학회 부회장
法古創新 代表
朝鮮伝統儀礼の行事 監督
アジア民族造形學會 副会長

연출・감독

국립 국악원 궁중의례 연출
국빈환영의전 고증/ 연출
2023 사도세자 천봉 행렬 감독
2023/2024 조선 정조대왕 능행차 감독
2024 이순신장군 장례행렬 감독

논문 관련

- 조선조 궁중진연의 원형과 공연예술로서 방법론
 - 춤을 사랑한 조선의 왕세자
 - 차를 사랑한 조선의 왕세자
 - 정조, 사도세자의 천도재를 열다
- 양로연의 현대적 공연 콘텐츠 개발
 - 조선시대 양로연의 의례와 의물

정조대왕의 현릉원 능행차 의미 고찰

김 거 부

I. 머리말

1996년에 수원시에서 발간한 『원행을묘정리의궤』 영인본을 지인으로부터 1999년에 받았는데, 이것이 평생을 정조(正祖)와 관계된 내 평생의 업(業)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2001년 국립국악원 개원 50주년 특별공연작품으로 “왕조의 꿈 태평서곡”이 기획되었고, 그 내용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8일간 행사중 5일째 있었던 정조(正祖)의 모후(母后)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인 “봉수당 진찬”이었다.

2001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지속된 “왕조의 꿈 태평서곡”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100여회 이상을 공연하면서 국립국악원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 2018년 송년 공연 후 2019년 봄에 터진 코로나 엔데믹으로 그 후에 무대에서 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로인해 약 18년간을 “왕조의 꿈 태평서곡”의 궁중의례연출과 대본을 담당했던, 본인도 본의 아닌 휴직 상태였는데, 지난 해 운명처럼 “2023 정조대왕 능행차(공동재현)” 수원 구간 감독의 제안이 들어왔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감독직을 수행하였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타난 8일간의 축제 중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행사였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한양의 영우원에서 수원 화성의 현릉원으로 이장하고, 해마다 능행차를 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총 13차례의 능행차를 하였는데, 그는 과연 왜 이렇게 집요한 부왕의 참배에 집착하였을까.

II. 정조대왕의 현릉원 능행차

1. 임오화변과 정조의 즉위

1) 임오화변(壬午禍變)

1762년 윤5월 13일에 영조(英祖)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라는 곡식

저장고에 가두어, 8일만에 죽게 만드는 조선왕조 초유의 사태인 임오화변이 일어 난다.

당시에 11살이었던 세손(世孫) 정조(正祖)는 할아버지인 영조(英祖)에게 “아비를 살려 주세요”라고 매달렸지만, 외면 당하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궁궐 밖 외가로 나가는 바람에 아버지의 임종도 소식으로만 듣게 되고, 상복도 입어보지 못하고, 장례식에 참석치도 못하였다.

2) 정조의 즉위

1776년 3월 10일, 경희궁 승정전에서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처음 한 말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嗚呼! 寡人 思悼世子之子也)"라는 일성이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10일 뒤 아버지의 시호를 “장헌(壯獻)”으로 올리고, 사당을 ‘수은묘’에서 ‘경모궁’승격시켰으며, <경모궁 제례악>을 만들어 재(齋)를 올렸는데, 기일 하루만 재를 올리는 여느 왕과 달리, 그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던 윤5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을 재실에 머물며 아버지를 추도했다.

2. 현릉원 천봉과 능행차

1) 영우원 천봉 상소

1789년 7월 11일 정조의 고모부인 금성위 박명원이 영우원이 흥지라 천봉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자 정조(正祖)는 대신들앞에서 상소문을 읽게 하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

2) 영우원 천봉

1789년 10월 5일 새벽. 사도세자의 영구는 한양 배봉산을 출발하여 경기도 화성으로 향하였고, 10월 6일 한양을 출발한 정조(正祖)는 10월 7일에 천하의 명당이라는 화산에 도착하여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현릉원이라 하였다.

3) 13 번의 능행차

	일정	행차 내용
1	1789.10. 6~9	5 일 밤 찬궁을 열고 6 일 새벽 영구가 한양을 출발해 10 월 9 일 현릉원에 안치함
2	1790. 2.8~ 12	수원행궁의 전각 명명식 및 사도세자 온양온천 행차시 만난 노인 위로
3	1791.1.16~~18	현릉원 전배 및 작헌례 서유대 총융사, 조심태를 훈련대장에 임하다

4	1792. 1.24~26	현릉원 어진 봉안/득중정 별시
5	1793.11.12~14	수원부를 화성부로 바꾸고 유수부를 승격시킴
6	1794. 1.12~15	화성 축성 하명
7	1795. 윤 2.9~16	8 일간의 축제
8	1796. 1.20~24	동장대 사열 및 매화포 관람
	1796. 10.16	수원행궁의 낙성연이나 전염병 및 옹주의 두질로 참석 못함
9	1797.1.29.~2.1	수원 화성 순행
10	1797.8.15.~19	김포 장릉 참배 및 안산 행궁과 수원 행궁 유숙
11	1798.2.1.~5	현릉원 친제. 아픔
12	1799. 8.20~21	현릉원 친제
13	1800. 1. 17~18	현릉원 친제. 옳드려 흐느낌이 예전과 다름

Ⅲ.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의 문헌 전거

1. 조선열성조 능행도

『조선열성조능행도』는 1926 년 4 월 15 일 서울 인사동의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10 폭의 병풍그림으로 김석태가 전체 33 개 장면으로 그렸다.

서점 주인 백두용은 『조선열성조능행도』 출간 광고문을 매일신보에 실으면서 “불가사의한 구경거리”라고 했는데, 고종 31년인 1894년 3월 6일에 건원릉(태조), 현릉(문종), 휘릉(장렬왕후), 수릉(익종:효명세자)에 나아가 친제하였는다는 기록이 조선왕의 마지막 능행차였다.

조선 최고의 볼거리가 1910 년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왕의 행차는 “불가사의한 구경거리”였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병풍그림일지라도 말이다.

『조선열성조능행도』는 역대 의궤 그림에서 왕의 존재를 그리지 않는 것에 반하여 왕의 인물을 그려 넣은 것은 비록 조선의 왕이 허울뿐일지라도 아직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그림을 통해서라도 조선의 백성들에게 조선의 왕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림으로라도 조선 최고의 볼거리를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어 제작하였을 것이다.

2. 원행을묘정리의궤 능행도병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8 폭의 능행도가 있는데, 제 1 폭 노량주교도섭도, 제 2 폭 화성성묘전배도, 제 3 폭서장대 성조도, 제 4 폭 봉수당 진찬도, 제 5 폭 낙남헌 방방도, 제 6 폭 득중정 어사도, 제 7 폭 낙남헌 양로연도, 제 8 폭 시흥환어행렬도이다.

이 중 〈시흥환어 행렬도〉는 「화성행차 반차도」가 고궁박물관 수장고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정조대왕 능행차”의 주요 참고 자료였다.

3. 화성행차 반차도

반차도란 궁중의 각종 의식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써 행사에 참여한 문무백관이 임무와 품계에 따라 늘어서는 차례를 기록한 도표를 가리키며, 『화성 능행 차』그림은 총 63 면의 그림으로 길이는 44.83m 에 총 1772 명의 수행원과 786 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다.

IV. 8 일간의 축제

	내용
1 일차	창덕궁을 출발하여 노량진에서 배다리를 통해 한강을 건너, 시흥 행궁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였다.
2 일차	구군복에서 황금갑옷으로 갈아 입고, 장안문에서 군문의식을 행한 후 행궁에 들었다.
3 일차	공자(孔子) 사당인 대성전에 참배하고, 문무과 별시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4 일차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동행하여 아버지 무덤인 현릉원을 참배하고, 주야간 군사훈련을 참관하였다.
5 일차	봉수당에서 회갑연을 열었다.
6 일차	신평루에서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낙남헌에서 양로연을 베풀었다.
7 일차	행궁을 출발하여 시흥행궁에 도착하였다.
8 일차	시흥행궁을 출발하여 배다리를 건너 창덕궁에 돌아오다

V. 맺음말

정조(正祖)의 현릉원 능행차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효행(孝行)의 행차였으며, 오가는 길에 백성과 소통하며 백성의 민원을 해결해 주어,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행행(行幸)이었고, 특히 1795년의 8일간의 행차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과 한을 풀어 주는 천도재였으며, 어머니에게는 남편의 무덤에서 33년 간의 회한을 울음으로해지하게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죽음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모든 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아 미래로 나아가는 개혁정치를 펼쳐 장차 백성이 주인이 되는 “백성의 나라”를 만들고자 한 눈물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아들인 세자가 성인이 되는 5년 후엔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上王)으로 물러나 화성에 행재하며,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며 살고자 하였다.

할아버지 영조(英祖)의 명으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수 없으니, 아들인 세자가 왕이 되어야 할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수 있었다.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은 왕위를 버리고자 한 정조(正祖).

논자가 찾아낸 정조(正祖)의 능행차에 숨겨진 “정조의 속내”이다..

□ 참고문헌

- 「원행을묘정리의궤(국역)」. 수원시. 1996
-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한영우. 효형출판. 2006.
-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한영우. 효형출판. 2007
- 「정조의 복수, 그 화려한 여드레」. 박영목. 시간의 물레. 2011.
- 「사도세자의 고백」. 이덕일. 푸른역사. 1998.
- 「사도세자의 죽음과 그 후의 기억」. 김용흠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의궤 8일간의 축제」. KBS 제작팀. 민음사. 2022
- 「정조능행의 문화유산적 지평」. 이달호 외. 민속원. 2022
- 「원행을묘정리의궤」. 김문식 역해. 아카넷. 2022

第 4 号発表者紹介
제 4 호 발표자 소개

이병화 李秉花
LEE Byoung-Hwa

아시아민족조형협회 주석 부회장
한복산업센터장
동아시아 역사문화 연구소 공예연구소 교수
アジア民族造形學會 主席副会長
韓服産業センター 所長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工芸研究所 教授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석사/이학박사)

논문

- 이병화(2024), ICT 기반의 기업-소비자 연동 패션콘텐츠 모델제안, 한복문화 27(2), pp.5-19.
- 이병화(2021), 서울 궁궐 문화해설사의 한복유니폼 개발, 아시아민족조형학보 제 22 집, pp.75-90.
- 이병화(2021), 한국의 서울소재 고궁과 인사동거리 한복 착용문화 확산 프로그램개발, 일본・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 논문집 제 4 호 pp.105-118.
- 이병화(2020), 한국의 한복 온라인쇼핑몰 현황 파악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전략 제시, 일본・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 논문집 제 3 호 pp.145-159.
- 이병화(2018), 한국전통상례문화의 변천과 미래의 상례복 제시, 아시아민족조형학보 제 19 집, pp.79-95.
- 이병화(2017), 전통출생의류품 확산을 위한 DIY 상품 개발, 한복문화 20(1) pp.17-30.

활동업적 및 기타

- 2023 파키스탄 초청 한국문화 특강 - 이슬라마바드 느믈대학
- 2022 한스타일 창업메이커스 특강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 2021 한복문화의 탄생과 스토리텔링 전략 특강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 2020 교원 직무연수 일반과정 “한복문화유산 스토리텔링교육”, 국가유산청
- 2019 년 한복문화학회 국제학술 논문 발표 및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산업탐방
- 2018 년 - 중국 운남민족대학교 비물질문화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작품전시

조선22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시 왕가복식 착장 제시

이 병 화

I. 서 론

조선 22대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수원까지 내려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顯隆園)을 참배한 후 화성행궁에서 성대한 회갑연을 치렀는데 이 과정에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원행을묘정리의궤이다. 조선왕실의궤로 총 10권 8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등이 소장하고있다¹.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는 본 행사와 더불어 지역의 단체와 동호회 등이 함께참여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먹거리가 함께 어울려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축제에서 문화유산을 재현하려면 시각적 표현이 되는 복식과 기물의 고증이 필요하고 행사당일 복식 착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정조대왕 능행차에서도 반차도에 의한 복식고증 제작과 착장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그날의 주인공들 복식을 잘 재현하여 연출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므로 이들의 복식을 잘 연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유산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주요인물인 왕가복식의 연출 순서를 재현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사의 품격을 높이는 데 있다. 본 논문의 기대효과는 문화유산으로 재현되는 행사의 복식연출에 큰도움이 될 것이다.

II.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의 의미

정조대왕 능행차는 1795년 정조가 왕위에 즉위한 지 20년이 되었고 정조의 모친인 혜경궁의 회갑이 되는 해였고 당쟁에 휘말려 죽음에 이른 사도세자는 부인과 동갑이었으므로 역시 회갑이 되는 해였다. 부모의 회갑 잔치를 위하여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원행길에 나서는 행렬로 조선시대 가장 큰 잔치행렬이라 할 수 있다. 이 잔치는 왕실 가족만을 위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았고 혜경궁의 회갑 잔치와 함께 노인을 위한 양로연, 젊은 사람을 위한 문무과 시험, 어린 학생을 위한 학문 권장, 일반 백성을 위한 쌀 배급이 있었다. 이러한 행사는 왕실의 기쁨을 만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행사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긴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을묘년(1795)에 있었던 국왕의 행차 모습을 세세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궤이다². 이 의궤의 내용에 있는 반차도를 중심으로 현대의 축제로 진행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는 1996년 수원화성문화제에서

1 나무위키, 을묘원행정리의궤

2 김문식, 의궤를 통해 본 왕실 생활, 규장각역사문화콘텐츠.

최초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이 시작되었다. 화성이 있는 수원에서 화성 주변의 시내 8km 구간만 재현하는 행사였으나 2016년에 수원시와 서울특별시의 합의가 이루어져 서울 창덕궁부터 수원 화성 연무대에 이르는 약 47km 구간을 최초로 재현하였다.

			
구군복 출처:한복진흥센터 교육용e북	철릭 출처:한복진흥센터 교육용e북	창의 출처:권오창, 조선시대우리옷	주의(두루마기) 출처:권오창, 조선시대우리옷
			
호의(중치막) 출처:권오창, 조선시대우리옷	전복 출처:권오창, 조선시대우리옷	당의 출처:한복진흥센터 교육용e북	너울 출처:국립민속박물관
			
주립 출처:국립민속박물관	전립 출처:국립민속박물관	전건 출처: 나무위키	전립2 출처:구글검색 전립

<그림 1> 반차도에 의한 행렬의 복식 분류

이 행차는 전 구간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규모가 커지고 의미가 크게 진작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중단되었다가 2022년에 서울시와 경기도(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등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서 능행차 전 구간이 재현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크고 작은 행사가 중단되면서 경기와 생활환경이 침체되었던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2022년에는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조의 능행차 행렬 구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능행차 전 구간이 재현되면서 시민들의 축제에 대한 활력을 높여 주었다. 행렬이 지나가는 각 구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창적인 문화행사와 전통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접목되어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로 축제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그 시대의 복식과 기물들이라 할 수 있는데 반차도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복식은 구군복과 철릭이다.

III. 능행차 재현 시 왕가 복식구성

정조대왕 능행차의 주인공인 혜경궁은 노의를 착용하고 창덕궁을 출발하여 수원 화성으로 가서 회갑연을 치루게 된다. 노의일습을 재현하여 착장한 논문이³ 있어 이를근거로 의복구성을 보면 현대적 축제로 재현할 때 속옷은 층을 이루는 속치마 하나로 무지기치마를 대신하고 저고리 삼작은 당의1벌이나 저고리 1벌로 대체할 수 있다. 치마는 청·홍 스란치마 2벌이고 노의, 대, 어여머리에 떨잠 장식을 하고 버선과 꽃신으로 혜경궁이 당시에 착용하였던 노의의 외형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능행차의 주체자인 정조는 부모님의 회갑연을 위해 수많은 문무 대신과 사도세자의 묘를 거쳐 화성에 도착한다. 정조대왕의 복식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없으므로 융복을 입었을 것으로 보고 왕이 융복을 입은 철종의 어진에 준하여 복식을 설명할 수 있다. 철종왕은 기본복식인 저고리 바지를 착용한 후에 소창의를 입고 그 위에 융보가 있는 철릭과 전복을 입고 화려한 자수 광대(넓은 띠) 위에 전대를 매고 머리에 공작깃이 달린 전립을 쓰고 목화를 신고 지휘봉을 쥐고 있다.

왕의 가족인 청연군주와 청선군주는 정조왕의 동복 여동생들이다. 군주라는 칭호는 당시 세손 적녀에게 내리는 정2품에 해당하는 품계로 사도세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세자이므로 자녀들이 군주의 품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고종황제가 사도세자를 추존하면서 공주로 격상하게 되었다. 두 군주의 복식도 어머니 회갑 잔치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어머니인 혜경궁이 노의를 착용하였으므로 이들은 노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장삼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김남희, 최연우(2018), (인조장열왕후) 가례도감의례, 한국의류학회지 42(2) 360-378.

IV. 복식 착용 순서

1. 정조대왕의 용복착장 순서

머리에는 탕건을 쓰고, 바지와 저고리, 버선을 기본으로 갖춘다.

행전을 매고, 소창의를 입는다. 용보가 달린 철릭 또는 용복(구군복)을 입고 광대를 두르고 그 위에 전대를 맨다. 공작털이 달린 전립을 쓰고 화를 신는다. 현대의 축제 형식으로 치르는 능행차에서도 주요인물만은 전통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계승 차원에서 원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 참조).

			
탕건+ 저고리+ 바지+ 버선+ 행전	기본복+ 소창의	철릭 또는 용복	철중어진의 용복

<그림 2> 왕의 용복 착용 순서

출처 : 김아람, 한국기록유산 이미지/ 권오창, 조선시대우리옷

2. 혜경궁의 노의착장 순서

기본복식으로 속옷을 챙겨 입은 후 속적삼과 속치마를 입는다. 저고리 삼작과 치마 그리고 스란치마를 입고 중삼을 착용한 후 노의를 입는다(그림 2 참조). 대를 매고 머리는 큰머리(어여머리)를 하고 뒤틑이와 떨잠 장식을 한다. 버선을 신고 꽃신을 신는다. 현대의 축제의미로 치루는 행사인 만큼 모든 순서를 준수하기보다는 일부 생략하면서 대체물을 활용하여 외형의 형태는 전통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① Jeoksam + Sokkot	② Jeogori1 + Chima1	③ Jeogori2 + Chima2	④ Jeogori3 + Chima2	⑤ Joongsam	⑥ Noeui + Dae (belt)

<그림 3> 인조장렬왕후 노의 착용 순서

출처 ; 김남희, 최연우, 논문발췌

3. 청연과 청선군주의 장삼착장 순서

장삼의 착용순서는 노의와 같은 방법으로 적삼과 속옷 및 속치마를 입고 그 위에 저고리 삼작(3벌의 저고리)과 청홍치마 2벌을 착용하고 중단을 입고 장삼을 착용한다. 머리는 어여머리에 장식하고 버선과 꽃신을 신는다(그림 2 참조).

이상과 같이 정조대왕 능행차 시 주요인물인 왕가 가족의 복식착장 순서를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현대에 똑같이 재현하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주요인물 인만큼 고증에 가까운 복식 재현에 노력하여야 후세에도 큰 변화 없이 전승될 것으로 본다.

V. 결 론

오늘날 전통을 기반으로 한 과거에 행하였던 연회와 행사, 역사적 사건을 현대에서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의미로 재현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활력을 주려는 노력으로 크고 작은 축제를 거행하여 경쟁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 한다. 그러나 현대적인 축제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원류가 심히 훼손되고 의미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원류는 고증을 통하여 지키면서 본 행사 외에 부대행사와 더불어 축제를 진행하면 전승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행사에서는 과거의 복식을 기반으로 연출되므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한복의 착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복식연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해소하고 행사의 본 취지를 살려서 전승하려면 복식의 착장 방법을 연구하여 필요한 자에게 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로 진행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주요인물인 왕족 복식의 일습과 착장 순서를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행사에서 주인공의 복식만 잘 연출하여도 행사의 품격을 높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통행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한복 착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 한 착장방법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남희, 최연우(2018), (인조장열왕후) 가례도감의궤, 한국의류학회지 42(2) 360-378.
- 김문식, 의궤를 통해 본 왕실 생활, 규장각 역사문화 콘텐츠.
- 나무위키, 율묘원행정리의궤

第 5 号発表者紹介
제 5 호 발표자 소개

김월계 金月桂
KIM Wol-Gye

미래복식연구원 원장
아시아민족조형학회 총무이사
未来服飾研究院 院長
アジア民族造形學會 総務理事

학력 및 경력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미술학석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한국복식전공(이학박사)
전)성신여대, 성균관대, 건국대 강사
전)성신여대 의류학과 전임강사

논문

김월계 외 1 명(2024), A Research on the Women's Costume on the Bigdata of Movie Napoleon, IJACT, 12-3. pp.21-28.
김월계(2014), 한국 복식 관련 교과목 현황 분석 및 제언,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4, pp.5-15.
김월계(2013), 풍속화와 우키요에에 나타난 여자복식 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2, pp.63-81.
김월계(2011), 전통 배자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1, pp.105-115.
김월계(2010), 서양복식 유입기 전통복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13-1, pp.37-53.

전시 및 패션쇼

2000-2014 개인전시회 7 회
국내외 전시 및 한국전통복식 패션쇼 참가

상복(喪服)과 상여(喪輿)에 나타난 기복(祈福) 표현

김 월 계

서 론

우리에게 '복(福)'은 물질적 부(富) 뿐만 아니라 생명, 가족,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 가족, 공동체의 행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을 비는 기복 행위는 생애의 주용한 의식마다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기복 표현은 경사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상례와 같은 슬픈 의식에서도 나타난다.

상례는 인간의 죽음을 처리하는 일생의 마지막 의례로, 다음 세대로의 가계 계승을 의미하며, 상중에 지켜야 할 모든 예절을 포함한다. 상복과 상여는 전통 장례의 중요한 요소로, 각각 고인의 안녕과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기복적 표현을 상징적 형태나 색상,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전통 상복과 상여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상례는 간소화되고 서구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흰색 국화와 검정색 장식으로 꾸며지고,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한복이나 생활한복 형태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검정색 장의차가 이용되고 있다. 전통 상복이나 상여를 사용하는 상례는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 상례 중 상복과 상여에 담긴 기복 표현을 고찰하고, 현대 상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현대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범위는 현대 상례 문화와 이어지는 조선시대 이후로 한정하였으며,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연구하였다.

1. 상복에 나타난 기복적 표현

상복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상례비요><가례통감><증보사례편람>에서 그 구성과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상복으로 남자는 최의, 최상, 중의, 상관, 효건, 행전을 착용하였다. 가장 길에 입는 최의에는 길이 6치, 너비 4치의 사각포인 최를 달았는데 이는 눈물받이라고 불리며 고인을 잃은 슬픔을 억누르는 쇠붙이가 심장 부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최의의 뒷면에는 부판이라는 천을 사방 1자 8치 되는 크기로 깃 아래 꿰매어 드리웠는데 이는 지극한 애도의 정을 등에 짊어진다는 의미였다.¹⁾ 여자는 의상, 잠, 관, 개두를 착용하고 공통으로 수질, 요질, 교대, 장, 구를 갖추었다. 장은 지팡이로 악령을 쫓는다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부친상에는 대나무로

만든 죽장을, 모친상에는 오동나무를 이용한 삭장을 사용하였다. 대나무의 둥근 형태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늘 같은 존재임을 의미하고 오동나무의 아랫부분을 모나게 만들어 어머니를 땅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었다. 대개의 경우 지팡이색을 검정색으로 표현한 것은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라⁽²⁾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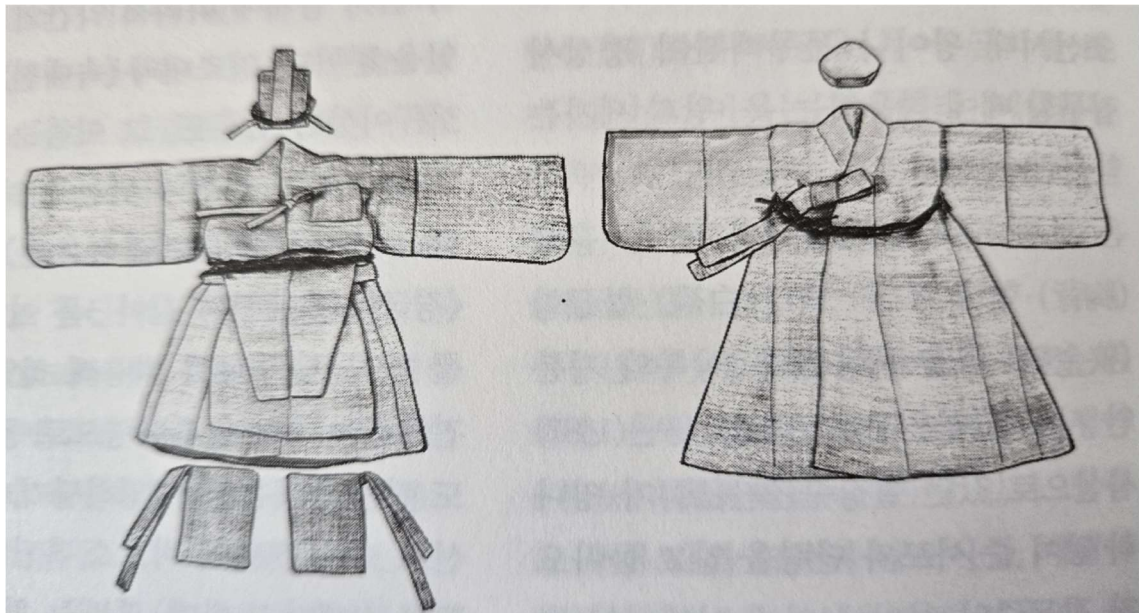
현재의 상복은 197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3일장으로 단축하고, 상복도 흰색 또는 검은색 한복으로 정한 법령의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복은 고인의 평안과 후손의 안녕, 가문의 지속적인 번영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흰색을 사용하여 죽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애도의 뜻을 표현하였다.

흰색 상복은 순수한 애도와 경건함, 영적인 정결함, 깨끗한 이별을 상징하며, 상주는 이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였다. 삼베로 만든 상복은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베는 거친 질감을 가지고 있어 고인에 대한 겸손과 순수한 애도의 뜻을 표현한다. 두건과 행전은 유교적 격식과 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고인의 영혼에 대한 존경과 유족의 슬픔을 표현하며 고인과 유족 간의 유대와 예의를 상징한다.

현재 많이 착용되는 검은색 상복은 서양의 영향으로 애도와 경의, 슬픔을 상징하는 검은색으로 고인을 기리는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통 상복은 고인에 대한 경건하고 정결한 애도의 의미로 흰색이나 소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자연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의미로 거친 삼베옷을 사용하여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례를 치른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림 에러!ブックマークが定義されていません。) 상복, 굴건제복과 대수장군,

한국복식문화사전, p.236.

2. 상여에 나타난 기복적 표현

상여는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반 도구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인도한다. 상여는 고인과 그와 연결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식으로, 대중의 신앙과 철학, 일상의 회로애락이 함께 담겨 있다.

우리나라 상여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타난 장례에 대한 기록을 통해 상여가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 <고려사>에서는 상여라는 용어가 보인다. 조선시대 상여에 관해서는 많은 기록과 실제 유물이 남아 있다.³⁾

상여의 장식은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으며, 개화기 이후에는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꽃상여가 등장했다. 꽃상여는 종이로 장식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장의차가 시신 운구를 대신하면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상여에서 상여는 시신을 운구하는 역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치관과 내세관을 표현하여 상여의 구조와 장식, 부속물들은 고인을 사후세계로 바르게 인도함과 동시에 내세에서의 안녕을 비는 신앙과 기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상여에는 행운과 보호의 상징인 용, 봉황, 구름 등의 장식이 있어 이는 고인이 무사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를 지닌다. 여러 장식품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용마루와 난간에 세우는 나무 꼭두이다. 상여의 나무 꼭두에는 시종, 동자, 호랑이나 말을 탄 무사, 선비, 악사, 광대 등 다양한 인물들이 있으며, 선비들은 홍색이나 녹색의 포를 입고 호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젊은 여자 꼭두들은 공양의 역할을 하며, 호랑이를 탄 염라대왕이나 동방삭은 용마루대 중간에 앉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꼭두는 인물 꼭두와 동물 꼭두로 나눌 수 있으며, 인물 꼭두는 보통 10cm 정도 크기로 말이나 용을 타고 길을 안내하거나, 무기를 들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동물 꼭두에는 고인의 영혼을 지켜준다고 여기는 봉황이 상여 앞뒤에 장식되고, 나쁜 기운을 막는 청룡과 황룡이 상여의 앞뒤에 엉켜 있는 형상으로 장식되었다.

상여 뒤편 앞뒤에는 용수판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잡귀를 물리치고 혼령을 지키는 벽사의 의미로 용이나 도깨비, 뱀 등을 조각한 판이다⁴⁾. 상여 뒤편 상부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꼬아 길게 일자형을 이루는 용마루가 있으며, 그 위에는 동방삭, 저승사자 조각이 부착되어 있다. 용마루 앞뒤에는 용두와 봉두가 꽃히고, 봉두와 병아리 나사에는 유소가 달려 있다. 수식은 휘장의 바깥에 다는 장식으로,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을 사용하였다.

상여의 장식은 고인의 사후세계에서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앙과 기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요 장식 문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십장생 문양은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인의 저승에서의 영원한 평안을 기원한다. 용과 봉황 문양은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하며, 고인이 사후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뜻을 지닌다. 연꽃 문양은 순수함과 깨달음을 상징하며, 고인이 깨끗한 저승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포도 문양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고인의 자손이 번창하고 가정에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진다. 구름 문양은 고인이

평온하게 저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무탈한 삶을 기원한다. 해와 달 문양은 고인의 저승길에 조화를 이루어 주며, 남겨진 자손들에게도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처럼 상여는 단순한 운반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각 부속 하나하나가 고인의 영혼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림 오류!ブックマークが定義されていません。) 상여

본테박물관 소장 <https://bontemuseum.com>

결 론

우리 전통 상복과 상여에 나타난 색상, 형태, 문양, 장식 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고인의 영혼을 위한 배려와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의미 담고 있다. 이처럼 상여에 새겨진 문양들은 죽음을 단순한 이별로 보지 않고, 남은 자들에게 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공동체의 염원과 유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전통 상복은 소박하고 검소한 자연 소재를 활용하여 고인이 자연으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기원하며, 흰색이나 소색의 색상은 정결하고 경건한 애도와 슬픔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특별한 문양을 사용하기보다는 재료와 색상, 그리고 최나 부관 장식으로 슬픔을 절제하며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였다.

전통 상여 또한 각 부분마다 고인이 무사히 사후세계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기복적인 문양과 다양한 색상, 부속품을 통해 장식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복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삼베 소재에서 양복이나 생활한복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상례복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상여의 경우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꽃상여의 형태로 고인의 종교를 반영한 장식들이 추가되는 등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장보다 화장의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례문화도 더욱 간소화되고, 리무진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차량에 전통 상여의 형태나 장식을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전통 상복과 상여는 축소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용되며, 나름의 방식으로 현대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하나하나의 장식과 문양들이 전통 상례 문화에서 갖고 있던 기복의 상징성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현대적으로 절충되고 조화를 이루어 반영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장례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인의 삶을 기리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감각에 맞춘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김영숙(1999),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214.

2)소황옥,정혜린(2004), ‘한국 전통 상복과 현대 상복 변화에 관한 연구’,한복문화, 7권3호, pp.17-26.

3)김무찬(2003), ‘한국 상여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pp.53-79.

4)박종민(2011), ‘한국상여의 변용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한중양연구원

<https://ncms.nculture.org/woodcraft/story/3587>

5)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6)<https://bontemuseum.com>

通訳者 紹介
통역사 소개

中村克哉 나카무라 가츠야
NAKAMUARA Katsuya

번역가・한문화언어공방 대표
아시아민족조형협회 이사
翻訳家・韓文化言語工房代表
アジア民族造形學會 理事

訳書：

金英淑《韓国服飾文化事典》

韓国・国立文化財研究所

《国外所在韓国文化財調査報告書 第20巻：文化学園服飾博物館所蔵韓国文化財》

韓国・国立民俗博物館《国立民俗博物館》図録

韓国・漢城百済博物館《漢城百済博物館》図録

韓国・ソウル歴史博物館《浅川兄弟と京城》

他

実行委員会委員 紹介
실행위원회 위원 소개

副委員長 부위원장

石川洋子 이시카와 요코
ISHIKAWA Yoko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主席研究員
동아시아 역사문화 연구소 주석연구원
専門:美術史 전문:미술사

委 員 위 원

小島 香 코지마 카오리
KOJIMA Kaori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工芸研究所 研究員
동아시아 역사문화 연구소 공예연구소 연구원
専門:日本画 전문:일본화

委 員 위 원

中塚万次郎 나카츠카 만지로우
NAKATSUKA Manjiro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工芸研究所 研究員
동아시아 역사문화 연구소 공예연구소 연구원
専門:陶芸 전문:도예

委 員 위 원

金城宙矛 킨조 히로무
KINJO Hiromu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工芸研究所 研究員
동아시아 역사문화 연구소 공예연구소 연구원
専門:陶芸 전문:도예

東アジア国際学術セミナー梗概集

2024 年 12 月 19 日

東アジア国際学術セミナー実行委員会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発 行 者 澁 谷 寿

編集責任者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印 刷 所 (株)文 伸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s
in TOKYO 2024*

Summary